

KÓKKOS 2026 7

• 코코스는 한 영의 믿음 의미 • 발행인 최장권 • 편집주간 이강동 •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 TEL 02-950-5401 • www.kbb.ac.kr •



JULY 2026

VOL. 291

▲ 6월 29일 안산시 대부도에서 진행된 교직원 연수회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심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부의 교직원들이 식사와 함께 카페에서 자유롭게 친목을 다진 후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찰칵!

기도로 채운 13주 “걱정 NO, 기도 ON”...

‘개인기도’ 전체 참여자 5,365명

‘기도공동체’ 학우 34개, 교직원 29개 참여

2026년은 ‘기도의 해’.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개인기도’와 ‘공동체기도’를 두 축으로 기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인기도’는 매일 12시 채플 시작 전 11시 40분부터 10분간을 개인기도의 시간으로 운영,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개인기도 첫날인 3월 23일, 86명이 기도에 함께했으며, 1학기 13주 동안 누적 인원은 총 5,365명에 달했다. 첫 주(5일 기준)에 425명(일 평균 85명)이 임했고, 마지막 13 주차는 165명(평균 33명)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특히 7주차(5월 4일-8일)에 605명(일평균 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주 평균 412명(5일 기준)이 동참, 캠퍼스에 기도의 열기를 이어갔다.

‘공동체기도’는 학생팀과 교직원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학생팀은 기존의 34개 전도반을 기도팀으로

전환 매주 수요일 전도에 앞서 교목실이 제공한 주간 기도문과 팀원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한 후 전도 현장으로 향했다. 교직원팀은 매주 월요일 교목실이 배포한 두 편의 묵상과 주제별 기도문을 자율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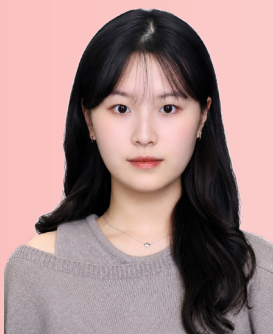
이번 기도의 운동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눅 18:1)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학은 ‘걱정 NO, 기도 ON’, ‘기도는 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일상에서 기도 실천하기 운동을 독려했다.

박태수 교목실장은 “우리 공동체가 일상에서 기도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기도의 해 간증

“하나님과의 관계 이어가며 그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

김세인 학우(사회복지학과 3학년)



매일 10분 개인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며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임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기도의 응답 여부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도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다지게 할 중요한 훈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배우게 해주었다.

매일 채플 전 10분이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10분은 매우 값지고 소중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기도 가운데 크고 작은 제목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다.

2025년도 부서 운영목표 대부분 달성

48개 지표 중 달성 27
개의 달성 11개

「2025학년도 부서 운영성과보고서」
발간

2025년도의 우리 대학 행정부서에 대한 운영성과를 3단계의 평가지표(핵심성과 지표, 일반성과지표, 부서지표)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관리실(실장 임지영 교수)이 5월 29일 발간한 「2025학년도 부서 운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우리 대학은 6개의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중 3개 지표를 달성하고 3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15개의 일반성과지표는 7개 지표 달성, 8개 지표 미달성이었고 27개의 부서지표 중 17개 지표 달성, 10개 지표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미달성 21개 지표도 11개 지표는 90% 이상을 달성하였고 9개 지표만이 90% 미만이었다.

6개의 **핵심성과지표(KPI)** 중 달성한 지표는 KBU핵심역량(100% 달성), 취업률(107.7%), 신입생충원율(100%)이고 미달성 지표는 재학생 교육만족도(96.2%), 재학생충원율(98.6%), 중도탈락율(72.3%)이다. **핵심성과지표란 대학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뜻한다. 15개의 **일반성과지표**는 성과관리실이 대학 운영의 적정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한 지표들이다. 달성 지표는 전공능력, K-NSSE 결과, 장학금비율,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세입 중 기부금비율 등이며 미달한 지표는 산업체 만족도,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세입 중 등록금비율, 법정부담금비율 등이다. **부서지표**란 각 부서가 목표로 설정한 지표이며 27개 지표 가운데 17개는 달성, 10개는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부서 운영성과보고서」는 형식을 표준화하고 정성적 지표나 정량적 지표 모두 가능한 한 숫자로 계량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년도의 성과도 병기하여 각 부서의 발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각 부서의 긍정적 목표는 「복음전도자」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할 때 이번 보고서에 지역사회임팩트센터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보고서 어디에도 우리 대학의 사명을 추구한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 일반 대학의 운영보고서와 '다름'이 없었다. 우리 대학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기억의 돌 여호수아 4:1-13

안창선 교수(성서학과)

가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열어볼 때면 작은 사진 한 장 속에 놀랍도록 그대로 담긴 그 날의 웃음과 대화, 그날의 풍경과 공기를 느끼며 추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억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그곳에서 가져오라고 하신 “열두 돌”입니다(수 4:5-7). 이것으로 애굽에서 건져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로 삼으십니다. 또한 그들의 자

손들에게 “표징”이요,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고전 10:4). 우리 앞에도 요단강 같은 현실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그동안 받은 은혜와 자비가 놀랍기에,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서 공동체가 열두 돌과 같이 여기까지 함께하셨음을 증언하는 살아 있는 기념비가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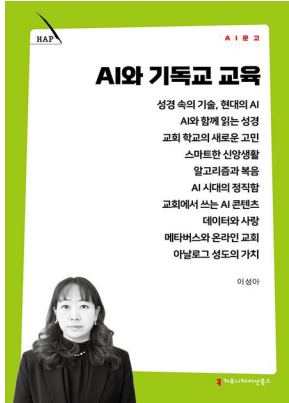
리니셜교



신간 소개

AI와 기독교 교육

이성아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6년 6월 15일



AI가 사면에서 쓰나미처럼 우리 생활에 몰려 들었다.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그 해당, 적용 범위가 날로 늘어나 이제는 우리 삶의 안방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이 AI의 도도한 출현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생들을 복음 전도자로 양육해야 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실상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성아 교수의 최신 저서 『AI와 기독교 교육』 더 정확하게는 『AI시대, 진리를 위한 기독교 교육』은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생각의 물꼬를 트게 하는 책이다. 그는 서문에서 “이 고도화된 기술(AI)을 성경의 역사를 돕는 선한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영성을 위협하고 신앙의 사유를 멈추게 하는 새로운 위기로 볼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논의는 10개의 기독교 교육적 주제로 나누어 전개해 간다. AI의 성경적 기준, AI를 활용한 성경 교육의 가능성과 신학적 위험성, 교회 학교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 등 성경적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AI기술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비판적인 환호를 경계한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영혼과 신앙공동체를 재편하는 강력한 환경”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교회는 특히 기독교 교육 담당자들이 “이 거대한 기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도의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유의 물줄기는 철저히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결론으로 흐르고 있다. AI가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한 의미를 천착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이 틀림없지만 “성경 읽기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삶이 변화되는 데 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 할지라도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을 만나 주거나...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할 수는 없다.” 고 강조한다.

이 책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쓰였다.

--- < 인용구는 저자의 『AI와 기독교 교육』에서 >

2026년 졸업자 취업률 (6월 현재) 33.3%

영보 93.1% 역대 최고, 앞으로 6개월 전원 취업 목표

2026학년 2월 졸업자 194명(2025학년도 8월 졸업자 포함) 중 6월 30일 현재 취업자는 58명(33%)이고 부분취업 인정자(진학자, 입대자, 외국인)는 20명으로 취업률은 33.3% 이다. 전년도 6월 자체조사 취업율 39%에 조금 못 미치는 통계이다. 학과별로는 성서 10.3%, 사복 24.5%, 영보 93.1%, 컴소 23.8%, 간호 23.9%로 나타났다.

취·창업지원센터의 문지에 센터장은 취업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미취업 졸업생과 함께 학과, 책임 지도 교수, 센터가 힘을 합하여 ‘전원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센터는 자체조사 현황을 매월 학과와 공유하고 있으며 학과

마다 특성에 맞게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영보는 취업자 관리를 통해 퇴사율을 낮추고, 간호는 계속하여 대기 기간을 확인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건보 가입이 안 되어 취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졸업생을 위해서는 관계자들과 함께 가입 절차를 독려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26년도 취업률 집계 마감일은 26년 12월 31일이다. 문지에 센터장은 26년 졸업생들에게 취업 관련하여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취업 상황을 학교에 지체 없이 통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사역지를 열어 주실 것을 믿는다.

2026-1학기 종강예배

박태수 교목실장
‘순교자의 길’ 설교



▲ 박태수 교목실장이 학부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1학기 종강예배가 19일 박태수 교목실장의 인도로 진행 되었다.

설교에 나선 박 목사는 ‘순례자의 길’(시121:1~8) 제목의 말씀에서 10년 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다가 고산병에 걸려 중도에 하산한 아픈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인생길도 수많은 위험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례자의 낮과 밤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준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험에서 지켜 주실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전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을 통해 “우리는 큰 결심을 해야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지만 변화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집 앞 골목길을 무작정 걸을 때 사색과 함께 변화되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방학 기간에 사소한 선택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볼 것”을 권면하였다.

이금주 총학 회장은 한 학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대학원 26-1학기 종강예배

설교 최정권 총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메시지”



▲ 최정권 총장이 대학원 종강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학원 1학기 종강예배가 15일 안창선 교학처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이날 설교는 최정권 총장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사42:1~9)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정체성 혼란과 좌절 속에 힘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최고의 하나님이다. 말씀 중심의 우리 대학원에서 좋은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였다.

최종혁 원우가 “1학기 동안 묵묵히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방학 기간이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간호학과 김정숙 교수 정년 은퇴

학습과 휴식의 공간 ‘로템나무아래’
설계에서 시공까지 산파역



▲ 김정숙(왼쪽) 교수가 최정권 총장에게 발원 기금 5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김정숙(간호학과) 교수가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정년 퇴임을 한다. 지난 2012년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지난 15년 동안 당시 신설된 간호학과와 교육 체계 구축과 각종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 및 학과의 지속적 성장책 마련에 헌신하였다. 2021년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의 직책을 맡아 일립관 5층을 ‘로템나무아래’로 개축, 학우들의 학습과 휴식의 센터로 탈바꿈시키기도 하였다.

김 교수는 “저를 우리 성서 공동체 안에서 근무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 퇴임 후에도 우리 대학의 비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기도하겠다”라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정년 퇴임 예배는 김 교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고 별도로 지난 11일 총장실에서 최정권 총장에게 학교 발전 기금 5백만 원을 전하며 학교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다.

김정숙 교수는 중앙대에서 간호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 파트장을 역임한바 있다.

‘많이 먹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성서학과 밀알학회 MT



▲ 광주 드림센터에서 진행된 성서학과 밀알학회 MT.

성서학과 밀알학회(학회장 황다애)는 6월 29~30일까지 경기도 광주 드림센터에서 MT를 개최하였다. MT는 ‘많이 먹자’를 슬로건으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조현진 학과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했다.

첫날 저녁예배에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반세호 목사가 “후배들이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시대를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해 깊은 도전과 은혜를 안겨주었다. 식탁은 주로 만학도들이 준비하였다.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이 한껏 드러나는 풍성한 식탁이었다.

학우들은 힘찬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서학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며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

사회복지학과 ‘이음학회’ MT



▲ 대성리 모꼬지 펜션에서 진행된 사회복지학과 이음학회 MT.

사회복지학과 이음학회(학회장 박하늘)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모꼬지 펜션에서 학과 MT를 개최했다. 이번 MT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모티브로 한 ‘인사이드 이음모션’을 주제로 다양한 감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학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진형 학과장을 비롯해 44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학우들은 감정과 협동을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에서 친목을 다졌고, 물놀이와 자유로운 교류로 피로 해소와 심신을 재충전하였다. 이어 열린 장기자랑에서는 각자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며 서로를 응원했고, 선후배가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 주제에 걸맞게 의미를 더해 주었다.

설립자 일립 강태국 박사



제 28주기 추도예배

우리 대학의 설립자 일립(一粒) 강태국 박사는 인본주의가 세속화해 가는 거센 파고 속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민족 복음화를 위한 제자 양성의 일관된 삶을 이어왔다.

이번 추도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 전도자 양성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짐을 갖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한다. 추도예배의 말씀은 박태수 교목실장이 전한다.



일시 7월 24일(금) 오전 11시



장소 밀알관 로고스홀



문의 950-5426

신학대학원 동문회 임시총회 개최

7월 27일
오후 2시 갈멜관 305호

한국성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재결성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7월 27일 (월) 오후 2시 갈멜관 305호에서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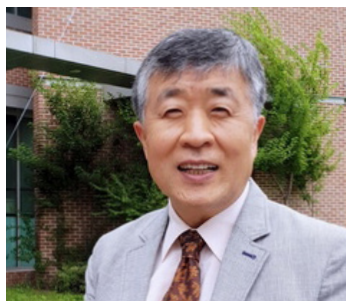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 대학원에는 신대원 동문회가 존재해 왔었으나 지난 2000년 코로나 확산과 함께 현재까지 모임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송창호 목사(푸른동산교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동문이 신학대학원 동문회 재결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진행, 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시총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 동문회 회칙 승인 ▲ 정기총회 일정 논의 ▲ 기타 안건 협의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동문회 재결성 준비위원회의 송창호 목사는 “이번 모임이 신대원 동문 간의 상호 협력과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과 비전을 더욱 힘 있게 감당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이번 임시총회에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 문의 전화 : 대외협력실 02-950-5599 / 5517

26년 제3차 법인 이사회

박종걸 목사 이사 선임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사장 강우정) 2026년도 제3차 이사회가 6월 15일 오후 2시 밀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홍설자(Sue Hong Crawford)이사 후임으로 현 경성교회 담임목사인 박종걸 목사를 만장일치로 이사로 선임하였다. 박종걸 신임 이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에서 M.Div. 학위를 받았다. 2008년 이래 우리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섬겨 오고 있다.

이사회는 또 대학이 제안한 규정개정안(2건)과 법인 및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우리 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88.8% 전출

전국 4년제 대학 중 상위 28.95%

2024학년도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7억 39만 원이었으며, 법인이 학교로 전출한 금액은 6억 2천178만 원으로 법정부담금의 88.8%를 부담하였다. 이는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2개 법인 중 44위, 상위 28.95%에 위치한다. 서울 소재 34개 법인 중에서는 6위(17.65%)이다. 비교군별 우리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위치는 다음 표와 같다.

2024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법정부담금 부담률 비교

비교군		전국대학	수도권	서울	소규모 기독교대학
대학법인수		152개	64개	34개	16개
우리 법인 위치	순위	44위	17위	6위	8위
	상위	28.95%	26.56%	17.65%	50%

‘2026 KBU Global Challenge’ 팀 선발

토모다치(성서)팀과
코알라(KOALA, 간호)팀

세계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고 선교와 전공 탐방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갈 ‘2026 KBU Global Challenge’에 성서학과 토모다치, 간호학과와 코알라(KOALA)팀이 선발되었다.

▲ 토모다치

‘토모다치’ 팀(팀장 조성민)은 6월 28일~7월 3일까지 일본에서 다세대 선교와 미래 기독교 사역의 방향 등을 탐구한다. 팀원 모두가 성서학과 소속이며 토모다치는 친구라는 뜻이다.

일정은 도쿄기독교대학(TCU), 아야세동부교회, 일본동경이단상담소 및 해안교회에서 인터뷰와 선교 전략 등을 살핀다. 특히 다문화 사회 속 청년 사역과 이단 문제 대응 방안을 통해 미래 한국 교회의 지향점 등을 모색하게 된다.

팀원은 ▲조성민(4, 팀장) ▲김대현(3) ▲김선덕(2) ▲이정현(2) 이다.

▲ 코알라(KOALA)

간호학과 5명의 ‘코알라(KOALA)’ 팀(팀장 윤고은)은 7월 2일~10일까지 호주에서 글로벌 간호사로서의 역량 키우기에 도전한다. 시드니공과대학교(UTS), 콘코드 병원, 시드니 만나교회, 호주한인간호협회(KNAA)를 방문, 간호 교육과 임상 시스템을 체험하고 현직 간호사 및 재학생과 교류를 갖는다. 멘토링 컨퍼런스와 네트워킹으로 취업과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등도 얻을 예정이다.

팀원은 ▲윤고은(팀장) ▲박영서 ▲안에서 ▲이예빈 ▲황찬하(모두 2학년) 이다.

AI학부, 세브란스 재활병원서 견학 전공 이해와 진로 설계 도움



▲ AI학부생들이 첨단 AI기술이 구현되고 있는 세브란스 재활병원을 견학하였다. (왼쪽부터 전영호 대외협력팀장, 김국현(1), 조성래 재활병원장, 한진호(AI)교수, 권가은(1), 하수림(2))

우리 대학 AI학부 한진호 교수와 학생 4명은 7월 1일 연세대 세브란스 재활병원을 방문, AI 기술의 의료 현장 적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은 재활병원 조성래 병원장의 안내와 홍준택 교수의 설명으로 AI 기술의 의료 현장 활용과 미래 의료기술의 방향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로봇재활치료센터와 디지털재활치료센터를 둘러보며 보행 재활 로봇과 AI·가상현실(VR) 기반 치료 장비 등 첨단 재활의료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보고 체험하였다. 전공에 대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의미있는 현장학습으로 평가됐다.

갈멜관 옥상 전면 방수공사 ... 균열부 전면 보수, 누수 원천 차단



▲ 고농축 방수재가 도포된 갈멜관 옥상

시설관리팀(팀장 박태용)이 지난 6월 2일부터 2주간 장마철 대비 갈멜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했다.

준공 42년이 된 갈멜관(1984년)은 장기간의 풍화와 자외선에 의한 노후화로 기존 방수층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균열이 발생, 호우 시 일부 강의실에 누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공사는 기존 방수층의 균열이 된 부분을 전면 확인한 뒤 손상된 방수층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제거하는 바탕면 처리에 집중했다. 이어 균열면 보수와 고농축 방수재를 두껍게 도포하는 도막 방수 공법을 적용, 방수 성능과 내구성까지 크게 높였다. 박태용 시설관리팀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갈멜관 옥상 누수가 차단될 것이라면서 학습환경이 좀더 쾌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의 편지 _ 최정권 총장

나가야 보이는 것들



제가 처음 외국이라고 나가 본 나라가 대만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 부목사 시절 교회의 배려로 대만에 가서 여름 한 달간 살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동남아 목회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배운 건 다양성 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다양한 나라를 다닐 수 있었던 기회와 20년의 짧지 않은 미국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배운 것도 세상을 내가 배우고 자란 문화적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 법은 다져보고 만나면서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2026 KBU Global Challenge'에 참여한 두 팀을 만났습니다. 작년에는 AI인공지능 학부의 원헌 공과대학 방문팀과 영유아 보육과의 일본팀을 만났는데 올해는 성서학과 남학생 4명으로 구성된 일본 토모다치팀과 간호학과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호주 코알라(KOALA)팀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참여하게 된 동기와 구성된 팀들의 목적 그리고 진행 과정을 듣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우수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탐방에서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기관과 접촉해 이메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장의 씨앗을 심었고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에 도착, 차창 밖에 보이는 풍경을 보며 다른 세상의 존재에 눈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한 건 머무는 도시나 마을의 오후를 걸어봐야 한다. 길을 걸어야 보이는 게 있고 미술관의 그림을 봐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저녁을 먹고 마을의 카페 노상에 앉아 커피 한잔을 놓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와라. 보는 게 배우는 것이고 걷는 것이 얻는 것이다.

복음 전도자란 먼저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탐방에서 좁고 외지고 답답한 관념이 아닌, 넓고 길게 보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희계장(교학팀)

신
년
의
인
문



김노아 조교(간호학과)

신
년
의
인
문

기도의 자리로: 침묵이 가져오는 변화

분주함이 지나고 캠퍼스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말고사와 성적 처리, 그리고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시점은 우리에게 잠시 숨 고를 시간을 선물합니다. 치열했던 일상을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분주함 속에 놓치고 있던 영적 자리를 되돌아보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방학, 우리의 영혼을 차분히 채워줄 책으로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를 권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행위'나 '감정적인 위안을 얻는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정직한 소통이자, 내 존재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지적인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루이스 특유의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은 우리가 평소 기도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막연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책 속의 이 메시지처럼, 루이스는 기도가 우리의 요구 관철이 아닌 창조주와의 관계 맺음 자체임을 강조합니다. 나의 언어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가식 없는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방학은 캠퍼스의 시계가 조금 느리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학업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종강의 계절에, 말과 감정의 과잉을 줄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잔잔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서, 다가올 새 학기를 지탱할 깊은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학이 쉽과 재충전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미처 갖지 못했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방학이길 바라며, 그렇게 채워진 시간이 다가올 새 학기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능소화

시골에서 자란 나는 식물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부터 집 주변과 들판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보며 자랐기 때문인지 지금도 식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푸른 잎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고,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바쁜 일상에서도 식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게 된다.

요즘에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식집사'라고 부른다. 나도 식집사로 도전해 본 적이 있다. 비교적 키우기 쉽다고 알려진 로즈마리를 다섯 번이나 키웠지만 모두 오래 살리지 못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나는 식물을 직접 키우기보다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며 지낸다.

그런 요즘, 내가 좋아하는 능소화의 계절이 찾아왔다. 능소화는 보통 6월 말부터 8월까지 꽃을 피우는 덩굴식물이다. 초록색 잎 사이로 주황색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여름이 되면 곳곳에서 능소화를 볼 수 있다. 특히 초록 잎과 주황 꽃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다른 꽃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매력이 있다. 능소화는 과거 양반집에서 많이 심었다고 하여 '양반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능소화를 보고 있으면 화려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이 든다.

학교에도 능소화가 있다. 야곱의 사닥다리 앞에 심어 있는데,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다. 아침마다 경건회 가기 전 능소화를 한 번씩 바라보고 지나간다. 햇빛이 비치는 아침 시간에 보는 능소화는 특히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잠깐 바라보는 것뿐인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여유는 소중하다. 아침마다 주변에 있는 꽃이나 나무를 한 번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능소화가 그런 존재다. 능소화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때, 평범한 일상 안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된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다채로운 삶을 품는 공동체

새벽예배를 마치고 당현천을 따라 잠시 달렸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 속에서 멀리 보이는 산들과 정성껏 가꾸어진 꽃길이 곱게 다가왔습니다. 꽃들은 저마다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고 그 다름이 모여 한층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만으로 채워진 인생은 없고, 눈물 없이 지나온 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희와 아픔, 기대와 염려가 함께 섞여 있는 다채로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다채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교정 잔디밭에 50대 형제들이 한참 동안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부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염려, 쉽게 꺼내기 어려운 삶의 무거운 고민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따뜻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짐을 나눌 공동체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색을 지닌 삶의 조각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인생의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밝은색을 지닌 날을 지나고 있고, 누군가는 짙은 그늘 속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한 색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퍼즐에서는 작은 조각 하나도 빠질 수 없듯, 공동체 안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둡게 느껴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밝은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도 함부로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의 삶을 모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고 계십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어주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듣고 서둘러 해답을 주기보다 함께 울어 줄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소중히 다루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인생의 빛깔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드러내는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44

수박 한 통

안도현

보름달 같은
수박 한 통

혼자서는
먹을 수 없지
다 함께
먹어야지
나눠서
먹어야지

달무리처럼
빙빙
둘러앉아
먹어야지



<https://blog.naver.com/momdiet83/224246789468>

겉은 초록, 속은 빨강, 게다가 점점이 박힌 까망까지, 이처럼 선명한 과일도 있을까? 이 극적인 색의 조화는 맛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져 수박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짭짤과 단맛이 어우러져 달콤함이 한층 배가된다.

거기에도 거대한 크기는 또 어떤가. 수박은 그 커다람으로 '함께 나누어라!' 손짓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보름달 같은 외양에 넉넉한 인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니, 어떻게 수박을 혼자 먹을 수 있으랴!

강렬한 색으로 눈을 사로잡고, 소금 한 꼬집으로 미각을 깨우며, 거대한 크기로 사람을 모으는 과일! '수박 함께 나누어 먹기'는 맛을 넘어 여름철 무더위를 함께 이겨내는 가장 유쾌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주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공릉동 도깨비시장 나들이

대학어린이집은 6월 13일, 노원구 민간 어린이집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나들이'에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1인당 1,000원 쿠폰 10장을 지급, 물품 구매와 식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체험과 상권의 중요성까지 배우게 해주었다.

우리 어린이집은 현장에서 행사 부스를 운영하면서 진행을 도왔다. 아이들은 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험을 통해 경제활동 개념을 익히고 전통시장이 갖는 분위기를 가족들과 느끼며 즐겁게 보냈다.

[기쁨반 문수란 교사]

성서대 (사복학과) 캡스톤 실습생 3명이 지역민을 위한 냉방용품을 후원하였다.



월계중앙사회복지관

성서대 캡스톤 실습생 물품 기부

19일 월계중앙사회복지관은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캡스톤 실습생 3명으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의 혹서기 물품을 전달받았다.

실습생들은 5월 27일 한국성서대학교 교내에서 혹서기 물품 모금을 위해 슈링크스 키링 체험 부스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냉감 이불 세트와 선풍기 2대를 복지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해 주었다.

전달된 물품은 혹서기 취약계층에 지원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를 돕는 데 활용됐다.

[이동재 사회복지사]

영축산 유아숲체험장에서 영유아들이 부모님과 숲속 놀이를 즐기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여름 숲에서 놀자

꿈빛어린이집은 6월 8일, 영축산 유아숲체험장에서 부모 참여수업 「여름 숲에서 놀자!」를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며 갖는 수업이다. 자연물 스탠실, 솔방울 골프와 솔방울 던지기, 보물 찾기, 포토존 사진 찍기 및 수박화채 만들기가 이루어졌다. 코스마다 스탠스를 찍고 선물까지 받는 등 부모님과 함께 활발히 교감하였다.

이번 수업이 영유아들에게 부모님과 숲속을 경험하고 가족간의 사랑을 듬뿍 채우게 하는 시간이 됐다.

[목련반 장애통합 최준서 교사]

리모델링으로 완공된 교육관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성서대학교교회

평택성서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진행

성서대학교교회는 평택성서교회 교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해 완공하였다. 4월 답사 후 6월 4일~8일까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건강하게 터전으로 재단장되었다. 6월 13일 담임 목사와 21명의 교우가 완공된 교육관을 방문, 평택성서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였다. 이어 평택역과 통복시장에서 지역 주민들께 전도사역을 펼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은혜를 경험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형제 교회가 서로를 세우고 지역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써 갈 것을 약속한다. [홍성진 부목사]

아름드리 예술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이 악기를 배우고 있다.



월계지역아동센터

아름드리 예술교육

월계지역아동센터에서는 KT&G 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아동 대상으로 악기 배우기를 통해 정서 안정을 돕는 아름드리 예술 교육(총 30회)을 운영해 오고 있다.

악기는 통기타, 우쿠렐레, 카혼 연주 배우기가 운영된다. 초반에는 아동들이 낯선 악기에 소극적이었지만 연주에 익숙해지면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다. 한 아동은 그동안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꿈을 이뤄서 좋다며 악기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변 모두를 흐뭇하게 해주었다. [박경진 생활복지사]

보육공모전 스토리텔링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김혜선 교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아동권리존중 공모전 수상

서울직장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직장어린이집 아동권리존중 공모전에서 김혜선 교사가 스토리텔링 부문 장려상을, 보육유공자상은 이진아 교사가 각각 수상하며 기쁨을 누렸다. 김혜선 교사는 “영아들이 더욱 존중 받는 보육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으며 이진아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 펼쳐가겠다”라며 기쁨을 전했다. 시상식은 24일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푸른반 박미애 교사]

뚝딱뚝딱 체험놀이터에서 영유아 가족들에게 버블쇼가 진행 중이다.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뚝딱뚝딱 체험놀이터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는 27일 관내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뚝딱뚝딱 체험놀이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 2회로 진행되어 73가정 246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공사장 에어바운스, 중장비 RC카와 대형 벽돌 건축 체험 및 중장비 주제의 체험 놀이와 버블·벌룬쇼 관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부모와 자녀가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이 프로그램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추억도 새기는 시간이 됐다. [임나리 특수교사]

여름캠프에 참가한 유아들이 에어바운스 물놀이에 참여 중인 모습.



상계5동어린이집

여름 캠프

지난 18일, 보듬이나눔이 아이들이 남양주에 위치한 여름 캠프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에어바운스 물놀이와 거품놀이, 튜브를 이용한 사계절 썰매를 타며 짜릿한 즐거움을 느꼈다. 루미샌드 놀이에서는 다양한 도구로 작품을 만들고, 고무리 놀이를 통해 재료 탐색과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도 해 보았다.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도움을 준 추억의 캠프가 되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영유아들이 조성된 사파리 체험 공간에서 동물과 곤충을 탐색하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사파리 체험

늘사랑어린이집에서는 6월 2일 ‘늘사랑 사파리’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내에 마련한 공간에서 다양한 동물과 곤충을 관찰하며 놀이까지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영유아들은 숨은 곤충 찾기와 채집하기, 소품과 의상 등으로 재현한 자연 생명체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였다. 친구들과 동일한 주제로 놀이하고 발견 내용도 공유하며 놀이 확장의 경험까지 쌓게 해주었다. [신나는반 김현애 교사]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진치료 집단 상담이 진행 중이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사진 치료

월계우리통합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로 사진 치료 집단상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폭력에 의한 심리적 어려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토대를 마련케 하였다. 호흡 명상과 건강한 의사소통이 더해진 방식으로 심리적 공감대 안에서 서로 서로가 사회적 지지 자원이 되도록 안내하였다.

[김예령 상담사]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5월 20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무명	1000만원 (운영)	반증원(이사)	102만원(운영)
(사)한국성서선교회	1000만원 (운영)	무명	100만원 (운영)
한국장학재단	300만원(장학)	도서출판 현문사	100만원 (간호발진)
김재엽 ((주) 네이즈 부회장)	300만원(운영)	초대교회(구재서 목사)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3구좌	여진희	중앙성서교회
1구좌 구세경 권순웅 금필규 김은혜 김정희 이안나 허영숙	50구좌 정태리	10구좌 원영희		10구좌 김윤규
2구좌 이선영	교직원 및 가족	부설기관		일 반
	1구좌 김애란	3구좌 박천순		2구좌 김상현 정형채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정숙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	100만원 초대교회
5천원 김남혜	윤지준 윤현중 이경일 이광석	신기환 신성철 신정섭 신화영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애숙	이대환 이동혁 이두현 이문성	안선래 양연주 유미영 유익숙	1만원 김미진 김윤영 김정녀 김혜미
강옥경 강은혜 강재현 강정희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윤광길 윤덕진 이광삼 이권호	나예린 박기범 박한을 성경자
강주옥 고대운 공승천 광미화	이복희 이분옥 이상용 이상준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송지민 심희정 양은성 이다원
곽원균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이상진 이상필 이선정 이세은	이선영 이슬강 이우진 이우미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곽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윤희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유진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연선 이정윤 이하람 이해정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이용원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충희 이현우 임은희 임은희	임경배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기상혁 김가영 김다솔 김도훈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임주영 장유정 장재원 전영희	전계화 정현규 조윤희 최예은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정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탈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한선희 한승천 한정화 홍상기
김민욱 김병렬 김선근 김세현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해란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주요한	홍강훈
김소영 김수연 김수경 김순덕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최선옥 최수지 최윤경 최윤준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김선옥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연정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최인규 최현우 최호정 탁명화	김성아 김성안 김승희 김정숙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장은희 장익식 장현숙 장호성	하지혜 허춘선 홍진옥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태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용환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생명의빛교회	문순용 문혜진 박유순 박윤경
김일준 김재현 김정원 김정희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안차남
김정희 김 진 김진숙 김진영	정선도 정소영 정슬기 정영교	김윤정 김지애 민승철 박기혁	여진옥 연성희 오명미 유효진
김현희 김현정 김현철 김혜영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주영	박문용 성인선 양연선 윤문순	이경민 이동훈 이만효 이미영
김화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소연	이길순 이다윤 이상은 이안나	이선경 이선미 이소희 이승진
남성휘 노정현 노한나 노 만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이주연 이현지 임은식 장영훈	이승찬 이윤규 이은영 이지영
류요한 류한나 문성령 문정혜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영덕	전지혜 차주엽 최소린 최은희	이재은 이해란 임정용 장영순
문홍철 박경진 박성준 박수진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최귀봉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정인숙 조복임 조윤희 최경애
박순임 박아론 박영모 박 원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좋은교회	최문정 최영숙 최유승 최장호
박윤복 박재신 박정선 박종주	최승진 최예민 최인호 최재봉	4만원 민성희 박주은 신은진 이은애	함은애 허 정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박향식	최종은 최진희 최현정 탁국순	임수경	2만5천원 황미숙
박현숙 박형택 박혜민 방지연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5만원 강경옥 강성훈 김기숙 김진경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배은휘 배재원 배창경 배효순	한상강 한지희 한혜우 허영숙	남영란 남정부 남희경 박정하	전옥순
백명희 백서영 백연옥 백연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홍혜경	박찬혁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5만원 김남숙 김명자 김희선 박인규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황예린/설에스터/황보혜영	안효진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박훈희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서 용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잡는교회	이부호 이지는 최경환	윤수호 이재현 이해영
손명배 손영하 손운숙 손진규	/열매맺는교회	/가락교회/성서밀알선교회	6만원 정주화
송기철 송민규 송바울 송성은	1만5천원 이에람	6만원 정동주	10만원 장은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2만원 고난홍 광자운 구연민 국소영	8만원 배정환	30만원 이덕순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권오진 김득희 김규리 김두환	10만원 김선옥 김종숙 서광진 서수경	50만원 정태리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김미나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신치선 이인영 이경원	100만원 무 명
양은숙 양주향 양지환 양혜영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이레강학	교직원 및 가족
엄미자 엄보영 엄현숙 오세천	김유경 김은하 김재철 김정복	11만원 유선미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오찬미 오재영 오현호 용아름	노민지 류충열 박경수 박문홍	12만원 성낙표	김상일 김성준 김세진 김애란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박민주 박성주 박재승 박준호	20만원 박예찬	김지영 김준하 김형중 김호현

기부자 명단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박인혁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서하나 신 군 양승원 유성준 유연자 이가영 임수아 임재혁 장경순 전귀선 정옥환 조성찬 진달래 최미영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근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윤인호 성서대학교회 9천원 김영숙 차옥제 최요한 탁경미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유종업 이가은 이경신 이대원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10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고세정 김세현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의자 김정희 김춘배 박혜원 안승수 이수연 이승학 이해영 최영란 한진경 2만원 강영애 신한성/이준구. 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4만원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이우근 한금례 6만원 신영옥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15만원 이혜선 24만원 황인돈. 김순자	10만원 김옥례 안순복 40만원 박순정 300만원 김재엽 1000만원 무 명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강호 문건희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이은혜 이지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지용 조철남 최난영 한정숙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이소연 이철희 하희수	1만3천원 정태성 1만8천원 강유진 권은정 김경례 김도매고 김선교 김성철 김애숙 김영숙B 김유미 김일선B 김지윤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민영빈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인숙 박천순 서영우 서 훈 손원자 안봉숙 안중인 양태환 오치숙 윤도진 윤재필 이관영 이길우 이보성 이소정 이승림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정선희 정현숙 조병하 조정선 최인숙 한성실 한순애 허진순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야 진은숙 진효숙 2만원 한옥경 일 반 1만원 구필래 권숙영 권창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상례 김석균 김양권 김예람 김유벽 김인호 김천수 김향숙 김 현 김혜란 김효진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혜신 서민식 안애숙 엄정호 오미라 오지는 오현숙 오형준 유금래 유화실 이관현 이시랑 이성영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재하 이재현 임숙자 장병길 전형식 조동빈 조목장 조성민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법식 최영훈 최은실 허수보 황영수 /한국인재인증센터 2만원 강명옥 강상래 권소영 길옥석 김동석 김민기 김상현 김성래 김윤숙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경숙 서병준 서성원 신지영 안은숙 이연식 이재한 이태일 임홍직 장단희 정주아 정 진 정하영 조혜령 최국열 최준서 최지연 한동훈 허정안 홍춘호/행복한교회 3만원 장문서 정미옥 추영철 /에덴종탐사 4만원 이일신 정형채 5만원 김민경 석지현 이진형 이천화 조예영 주은자 최지선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꾸꾸는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산교회/행복한교회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와식산업 /도새기방 /바르코복원교회/열방교회 3만원 동신자원/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눔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녹수교회/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사랑샘교회 /상일교회/천성교회 /평안교회(신병수)/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 /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동산교회 /두암산업(주) /상록교회/섬기는교회 /성복중앙교회 /의정부성암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청평교회 16만2천원 우리회 20만원 전학석/인천제2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60만원 경성교회 78만원 총학생회 100만원 도서출판현문사 300만원 한국장학재단 100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부설기관 3만원 권효진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강나혜 5만원 이인경 차도영 /월계지역아동센터 6만원 장나혜 10만원 김선영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5만원 이인경/월계지역아동센터 10만원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황병숙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일동성서교회 장자교회 4만원 권경숙 5만원 장자교회	지역사회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서애진 송유정 오동준 유주연 유희주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2만원 허성보 3만원 구세란 문유나 박미라 오윤아 5만원 이지연 진양희 7만원 김선화 35만원 오동준	소계(20260521~20260620) 62,943,089 누계(20260301~20260620) 310,182,262

한국성서대학교 6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34,166,089원)

김태일 10,010,689원 | (사)한국성서선교회 10,000,000원 | 한국장학재단 3,000,000원 | 김재엽 3,000,000원
 성서대학교회 2,500,000원 | 무명 1,000,000원 | 초대교회 1,000,000원 | 도서출판 현문사 1,000,000원 | 총학생회 785,400원
 푸른동산교회 500,000원 | 경성교회 500,000원 | 동서환경(주) 500,000원 | 이덕순 300,000원
 중앙성서교회 50,000원 | 황미숙 15,000원 | 김남혜 5,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35구과 연간 납입예정액 4,200,000원)

10구과 김은혜, 이인영 | 5구과 이영은
 1구과 강정희, 김연정, 김정원, 김미진, 박원, 박현숙, 이분옥, 장현숙, 배재원, 홍혜경

일시납 누계(2026.3.1~2026.6.24) 197,788,669원 | 약정자 누계(2026.3.1~2026.6.24) 320구과 | 연간 납입 예정액 38,400,000원